

## 요한일서

### 요한일서 1:1-2:11 (Tape #2633)

요한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요한이 이 서신을 썼습니까? 1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씬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벧전 1:8).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기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충만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의 그리스도안에 거하는것과 관련지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5:7,11).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은 기쁨충만을 기도생활 에 관련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3-24). 여기서 기쁨충만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과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안에 거하는것은 기쁨충만의 삶입니다.

이제 기쁨과 행복을 구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영의 질적상태이며, 반면에 행복은 감정의 질적상태입니다. 행복은 외부환경과 관련되어있기때문에 변하는것입니다. 모든일들이 잘되어가면, 예를들어 좋은차를 하나가지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차를 몰면서 햇바람을 킁니다. 그러나 어떤생각에 너무 집중한다고 나무를 들이 박았습니다, “이-크” 내행복이 사라졌고 나는 불행합니다. 또 슬픉니다. 모든것을 아직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변하는것이고 그것은 갑자기 돌변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오, 지긋지긋한 시간이야, 정말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나는 빗더미에 앉았고 저들은 내소유를 모두 차압해버렸어.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앉아서 10,000불 짜리 수표를 끊어서 당신에게준다면, ”오, 이거 참중군,” 하고 말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것입니다. 당신이 그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려고 갈때까지는 행복하겠지만 그후에 금방 다시 슬프게될것입니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에따라 변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영적인것이며 변하지 않는것입니다. 그것은 변함 없이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이있는것이기때문에 변하지않습니다. 그관계는 변하지않으나 악화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장된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충만한 기쁨을 가질수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짐으로 인해 기쁨이충만하기를 바라기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이 서신을 쓴 두번째 이유를 2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씬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 이 편지를 쓴목적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과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하려는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쓴 세번째 이유를 5 장 13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할 목적으로 이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자유를 가지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하는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이사야 55 장에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짝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0-11).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보내실때 그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않는다는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있으며 그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것이 나를 격려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이돌아오지 않을것을 알기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끝낼때쯤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전에 알았던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체험하게될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않기때문에, 당신은 죄를 극복할수있는 새힘을 얻게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될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목적은 이룰것입니다. 요한은 명료하게 이것들이 그가 이서신을 쓴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서신을 공부할때 우리의 주님과과의 관계를 잘 개발하게될것이 기대됩니다.

사람에게는 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수있을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에 어떤 개념을 갖게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하는것을 내가 보게되면 말로 하는것보다는 훨씬 더쉽게 그 본을 따를수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며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지적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본이되십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에서 우리의 본이시므로 그가 빛가운데 행하신것같이 우리도 빛가운데 행하는것입니다. 그것이 1 장 2 절에있으며, 그 다음에 2 장 6 절에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대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 또 다시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일에 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각 개인의영적생활에 본이 되십니다. 3 장 2 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 우리가 그를 보는것같이 우리들도 주님처럼 될것입니다. 그래서 3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의 순전함의 기준은 그리스도 입니다. 그래서 7 절에서 다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합니다. 속사람의 순전함과 의로움이 나의 본이신 그리스도 처럼 순전하고 의로워야합니다.

그런 후에 3 장 23 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본이 되시며 우리들은 그가 주신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모든것 중에서 결정적 의론은 4 장 17 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찌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는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주의 어떠하심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그는 우리가 따라야할 본이 되셔야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자신의 내적삶과 또 다른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이되십니다.

이제 성경은 스스로 속이는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요한은 우리가 우리자신을 속이는것은 가능하며 진리가 우리속에 없기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것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한것들은 대응되는 경험의 뒷받침을 해주지않으면효력이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볼때 요한은 사람들이 허위고백을 한다고 말합니다. 1장 6 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또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하면.” 이렇게 말하는것은 참좋은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가있다고 하면서 어둡가운데 행하면 당신 자신을 속일뿐만아니라 당신은 진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지못하면 그는 어두움에 행합니다. 이것에 관하여 속지마십시오. 이점에서 많은사람들이 속고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두움에 행하고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8 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 입니다.” 여기에서 “죄” 라는 단어가 단수이며 그것은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근성을 부인하려고합니다. 아시다시피 “내게는 죄성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 “모든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가 아니라 “모든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입니다. 한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 장에서 사도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른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라고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죄중에 태어났다” 고 했습니다.

이 죄성을 부인 하는것은 단지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여기에서 말하는것으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죄성이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것이라.” 성경은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임으로 죄를 짓는것이지 내가 지은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죄인임을 증명해줄뿐입니다. 내게 죄성이있기때문에 내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말도독을 비유로 들수 있겠습니다. 말을 훔쳐서 말도독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을통해 당신이 말도독인것을 증명할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말도독이 아니었다면 그말을 훔칠수없었을것입니다. 말도독이 아닌 사람이 결코 말을 훔칠수없습니다. 그렇게하고자하는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 속에 그렇게하고싶은 생각이없다면 그렇게 할수가 없습니다. 죄도 죄의본성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면 나는 나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내속에 있지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즉, 죄의뿌리가 열매를 맺은것뿐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사람이 죄를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하셨기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내죄의 뿌리가 열매맺은적이 있다는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것입니다.

이제 2 장 4 절은 그가 “내가 저를 아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말하는것은 훌륭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알지.” 그러나 “그가 ‘저를안다’ 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좀더 자세히 공부해봅시다.

6 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또말하기에 훌륭한 다른한가지입니다. “오,물론 내가 저안에 거하지요.” 말하는것은 놀라운것이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저안에 거하면 저가행한것같아 나도행할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 장 20 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라.” 내가말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것은 속임수가 될수도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될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것은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내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에 이러한 부조리가 얼마나 빈번한지를 볼수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행합니다. 아니면 이것을 해놓고 저것을 말합니다. 우리교회에 12 명정도의 작은소녀들이있는데 그들은 항상 내게와서 “안녕,척” 하고 인사하는데 이소녀들과 또 소년들이 너무나 예쁘고 그들의 마음도 착하죠. 그중에 2-3 살된 한소녀는 자기엄마에게 “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싶어” 라고 말했답니다. 그소녀는 나에 관해 말했으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소녀는 교회에 올때마다 항상 나에게 와서 인사하고 끌어안고 입맞추곤했습니다. 어느날 가족이 주일날 어디에 가야하므로, “오늘 여행을 가야하니 오늘은 교회에 못간다. 교회에 갈수가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소녀는 궁둥이에 손을 대고 하는말이 “제길혈, 나는 교회에 가고싶은데” 라고 했습니다. 모순을 어릴때부터 보여줍니다. 항상 내가 해야할 말을 하는것이아니고, 내가 다른사람처럼 행동하기도하며, 내가행하려는것을 행하지않고 엉뚱한것을 하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알수있는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알기를 원하시고 또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서신의 일부는 내게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수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우리가 이 서신을 공부할때 확실한진리를 아는 몇가지 방법이 있음을 발견하게됩니다.

2 장 3 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계명을 지키지아니하면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참으로 내가 그를 안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2 장 5 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예수안에 있음을 아는것은 그의 사랑이 내삶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3 장 16 절에 보면,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할때에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를 가리키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성경은 항상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사랑은 여기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하셨던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것입니다. 이제 3 장 19 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어째서 그런가? 18 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행동으로 사랑할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아는것입니다. 24 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저가 우리안에 거하심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진리를 알수있을까요? 4 장 2 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많은 교회나 종교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4 장 6 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를 듣는가 아니듣는가에 따라 하나님에 속한사람인지 아닌지 알수있습니다. 4 장 12 절로 돌아가봅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떻게 아느냐구요? 그의 사랑이 우리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 장 2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재미있는 서신입니다. 1 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의 첫구절을 성경의 첫구절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첫구절과 함께 비교해보는것은 아주 재미있는 일입니다. 성경의 첫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시다시피 출발점이 있어야지요. 그것은 태초이었겠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이전에 계셨고 항상계셨고 태초에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상상도 측정도 할수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다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것입니다. 이제 복음서에 “태초에 말씀(로고스) 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요한은 그의 서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요일 1:1-2).*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이말씀이 나타나신바 되어 우리가 보았고 주목했고 들었으며 우리손으로 만져본바라 고 했습니다.

요한은 다른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분이신지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듣고있을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것을 듣고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졌을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지고 있었던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얹을때 실제로 하나님을 만지고 있음을 깨달을때 그들에게 무슨일이 생겼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어깨에 손을대시거나 등어리를 두들겨 주실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 만지신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을 우리가 손을대었고 어루만졌고 귀로 들었으며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에 관한 미가의 예언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영생은 항상 존재하는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계셨으며 이말씀은 곧 하나님 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영원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한은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았고 들은것을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니라.” 그영생은 시간적 존속기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포함됩니다.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일을 하여야 영생, 즉 영원한 삶, 당신에게서 볼수있는 질적인 삶을 얻으리이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았고 또 들은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1:3).*

오늘아침에 추상명사인 코이노니아 (*koinonia*) 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영어에는 이 헬라 단어 *koinonia*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어가 함께하는 사람, 영적교섭, 공통적인것, 하나, 교제 등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수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것을 공통적으로 (*koinonia*) 가지고있고 또 가진것을 나누는것을 말합니다.

이 추상적명사가 온 근원이되는 명사는 함께하는사람, 짝 (파트너), 혹은 공동경영 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단어는 친구, 우정, 공동경영, 교제, 공통, 하나, 함께하는사람으로 번역되며 이 모든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것, 하나님과 교통하는것, 하나님과 공동으로 모든 것 을 가지는것, 하나님과 공동경영하는것,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것,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것을 말합니다.

공동경영이란 자원을 상호간에 나눠쓰고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것이며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데려오는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제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트럼본 (God's Trombone) 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그중 한구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외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시기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의 창조물과 하나가 되신것입니다.

교회안에서도 서로가 코이노니아 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물질을 통용했으며 무엇이 필요한사람들은 물질을 서로통용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모든물건들은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못했습니다. 그것은 게을러서 일하기싫어하는사람들이있어서 남의도움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을 가졌다면 그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하고 이상적인 상황에따라 일할수만있다면, 그리고 우리 의 마음에 성령의 사랑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공산사회가 잘이루어질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실되게 나누고 관심을 가지고 또 구체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게 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운데 거하는동안에는 아름다운것을 망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루어지지못했고 실제로 교회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공산주의를 실험한 결과의 재난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위해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 공산주의는 오늘날의 강압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경건한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안에서 사랑이 동기가되어 자진해서 모든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위한 공통적인 소원으로 시작한것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통치하는 정부로 완전한 정부는 찾아볼수 없을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오셔서 그의 왕국을 건설할때까지는 그런 정부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공의가 실현되는 완전한 정부가 될것입니다. 그때에는 상업이 필요없게 됩니다. 이사야 55 장에 의하면 돈도 필요없고 땅에서 나오는 모든 여매를 함께 나누어 먹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4).*

이 기쁨충만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친교를 하거나 교제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1:5a).*

이것이 근본적으로 요한이 말하는 멧시지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1:5b-6).*

우리가 죄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교제할수 없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 5:19-21)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말하지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저가 빛 가운데 계신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7).*

여기에 문장이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계속하여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번역되어야 하며 내게는 그곳이 행하기에 영광 스러운곳입니다. 예수께서 빛가운데 계시는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해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8).*

그러나 그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1:9).*

깨끗하게 되는방법은 (죄 가 없다고) 부인하는것이 아닙니다. 용서 받는길은 죄를 부인하거나 숨겨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이런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죄를 숨기고 덮어버리며 부인하면 단지 자신을 속일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얼마나 흑암같이 어두웠거나 비참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케 하신다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찰스 피니가 미국 동부의 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와 찰스피니의 부흥운동에 관하여 읽어 보면 지역 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수있습니다. 동부의 여러도시에서 부흥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후에 그 동네에 있는 술집은 단골손님이 다 떨어졌으므로 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그 도시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난것입니다. 여러집회를 가졌는데 어느 한 집회때

교회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을때 한남자가 그를 세우고 “오늘 저녁 집회후에 이야기 좀할수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피니 가 “예, 기꺼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계단의 꼭대기에 왔을때 교회의 집사들이 “그 사람 뭘 원하던가요?” 피니 박사는 “그 사람이 교회후에 나와 이야기좀 하자더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피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 도시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긋지긋한 사람이예요. 감히 그사람과 같이 가지마세요. 그 사람이 살인자들을 고용했는데 아직까지 함께 있는게 당신을 해치려는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화 하지마세요.” 예배가 끝난후 집사들이 모여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안가시는거죠?” 그는 “아니요, 같이 가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실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했으니 가야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니 박사는 그사람을 만나서 도로를 지나 골목으로 가서 어떤건물의 후문에 도달했습니다. 피니가 들어 갔을때 그 사람이 돌아서서 문을 잠근후 “앉으시요” 라고 했습니다. 피니가 앉자 그 사람은 자기의 책상에서 총을 꺼집어 내어 책상위에 놓더니 “당신이 어제 저녁에 말씀하는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니가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말 하는것을 들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죄에서 깨끗케 하실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니는 “아니요, 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잠깐만, 당신은 나를 모르시는구려. 내가 저질은것을 저혀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술집 뒷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 도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도박하는 기계는 고정되어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마자막 한푼까지 착취했으며 그들은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수 있단말입니까?” 피니는 “내가 말할수 있는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 하시리라’ 는 말씀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잠깐만,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쪽의 술집도 제 소유입니다. 남자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인들이 누더기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들의 남편에게 술좀 팔지말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인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쫓고내면서 그들의 남편들이 빈털털이가 되도록 술을 팔고난 후에 쫓아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수 있단 말입니까?” 피니는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총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것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여러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 해주신단 말입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내가 말할수 있는것은 성경이 말하는것뿐입니다. 모든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잠깐만, 저 건너편에 갈색돌집 보이죠? 내게 아내가 있었고 아름다운 아이가 하나 있었읍니다. 16년동안 제 아내에게 고운소리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죠. 그저께 내 아이가 나에게 쫓아왔는데 그 아이를 화로에 밀어 버렸더니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실수 있다고 하셨죠?”

그 시점에서 피니는 일어서서 그 사람을 멱사리를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청년, 당신은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도 상상도 할수없는 지긋지긋한 이야기를 나에게 했소. 그것이 내게 달려있다면 내가 당신을 용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러나 내가 말할수있는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 해주신다고 하셨소.” 그 사람은 “그것이 제가 알고싶은 전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잠근 문을 열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를때 그 사람은 술집에서 건너가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집에 왔을때 그의 아내는 어린딸과 함께 부엌에 있었으며 그는 위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딸에게 “너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침 식사 가 준비되었다고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 소녀는 쫓아가서 “아빠, 엄마 가 아침식사 준비 다되었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사랑하는딸아, 오늘아침에는 아침 안먹는다고



엄마에게 말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엌으로 쫓아 내려가서 “엄마, 엄마, 아빠 아침식사 안하시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딸이라고 불렀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네가 아마 잘못알아 들은게지. 올라가서 아침식사 준비되었다고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층계다리의 중간쯤 서서 “아빠, 엄마가 아침준비 다 되었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쁜이, 이리 와봐” 라고 했고 그래서 딸이 그에게 갔을때 그는 자기딸을 그의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던 어머니도 작은 소녀의 뒤를 딸아 올라가서 문앞에 서서보니 작은딸을 처음으로 그의 무릎에 앉혀서 안고 있었습니다. 그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리와 보세요. 어제 저녁에 나는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위대한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죄에서 깨끗케해주신다는것이.” 그는 술집을 달아 버리고 그 지역의 자선사업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리 어둡고 쓸모없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할것은 죄를 고백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 스러운것입니까!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소망없이 길잃은 사람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방인들에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것이고 이것은 가장 기쁘고 축복된 특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10).*

## 2 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2:1).*

이제 그는 이 서신을 쓴목적에대하여 말하며 그것은 당신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9 장에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죄의결과는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를범하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아담은 죄를 죄를지었고 하나님이 동산에오셔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그러하듯, 하나님과의 교제가 죄의결과로 끊어져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면 죄를 짓지말아야 하는것이 필수조건입니다. 또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질수있다고 기록하고있습니다. 물론, 죄를 이길수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아마 오는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1):*

대언자란 우리를 위해 중보해주는 중재자 또는 조정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에 서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사건 또는 연유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앞에 우리의 대언자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디모데에게 쓴글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딤후 1:9). 우리가 범죄할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언해주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욥이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때 그의 친구들이 그가 당한문제를 이해 시키려고 했습니다. 한친구는, “자네가 하나님앞에 바로서면 모든문제가 해결될걸세.” 욥이대답하기를,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를 깨달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노라.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나의 사정을 말하랴? 그는 광대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커서 그에게 건너갈수가 없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다리를 놓을수있으랴.” 그것이 모든종교의 취약점입니다. 그것은 지구에서 시작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아무리 팔을 넓게 벌려도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할수는 없습니다. 모든종교제도는 지구를 기초로 하기때문에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하늘을 기초로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접촉하시려고 손을 뻗으신것입니다. 그렇게하는데엔 문제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하실수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근거에서 시작하시면 성공적으로 인간을 접촉하실수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접촉하셨습니다. 그것이 태초에 이루어진일이고 우리가 보았고 주목했으며 듣고 나타난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가졌던 문제였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는 무한하시지만 나는 여기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어떻게 나의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앞에 나아갈수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시말하자면, 욥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도 접촉할수있고 인간에게도 접촉할수있는분이 중간에 있어야 한다는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분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이제 욥은 양척에 손을 얹을 판결자를 위해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분이시며 한분이신 중보자 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도 접촉하실수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계셨으며 그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몸을 입어 인간이되셨으며 사람들에게 나아가셨고 그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의손을 양척에 놓으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때 우리에게겐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의로우신 예수그리스도시니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2:2a)*

혹은 그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하기위하여 값을 치루신분이시며 우리의 죄뿐만아니라 온세상의죄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인류역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죄 에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의죽음에서 용서받지못한죄는 하나도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 그것은 예수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며 예수그리스도가 당신의 죄에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성령의 증거를 거절하는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7-19). 우리가 하나님앞에설때 그것이 우리자신이 대답해야할 유일한 질문일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일뿐만 아니라 온세상의죄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해야할 한가지 유일한죄는 빛에 나아오지않는것이요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교제를 거절하는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정죄로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들이 빛에 나아오지 아니함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일을 일일이 조사하지않으실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야한다면 단한가지 문제는 당신이 예수그리스도를 거절한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거절한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으며 우리의 죄 뿐만아니라 온세상의죄를 위한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2:3).*

요한복음 14 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 14:21). 계명을 가지는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롬 2:13).

예수께서 말씀 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 라”(요 13:34-35). 나는 이렇게 말할수있습니다, “그래 나도 계명을 가지고 있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그리고도 모두를 미워합니다. 계명을 가진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알수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2:4).*

내가 예수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참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삶의 형태와 양상이 달라질것입니다. 실제로 믿지않으면서도 믿는다고 말만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지않으면서 사람들로하여금 내가 믿는것같이 생각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속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나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어두움가운데 행할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안에 있는줄을 아노라 (2:5).*

기본적으로 모든계명이 이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가르쳤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3). 모든것이 사랑으로 귀착 되며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하고 또 행하였으면 모든것을 잘 지키신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계명을 말씀하실때 하신 말씀 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다른것도 할수없습니다. 그것은 함께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 하는자 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형제를 미워하면 보이지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수있겠습니까? 모든것이 사랑안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겐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힘이듭니까?” 당신이 보시다시피 “...을 하지말라” 는것은 결국 사랑에 귀착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사람을 사랑 한다면 그들에게 거짓말 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훔치지말라 또 거짓증거 하지 말라 는것은 필요 없는 말일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를 공경하며 그의 길을 지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그에게 맡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룰때 열개 또는 전체 목록을 지키려고 애쓰지말고 단지 두개만 다루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해 집니다.

어떻게 더럽고 비천한 인간을 사랑할수있습니까? 나는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 하십니다. 그래서 나자신을 그에게 위탁할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을 사랑할수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내안에 계실때 맺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안에서 온전케 되는것이며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의 막바지에 완전히 다다르기까지는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습니다. 내자신이 내유익을 찾고 내것과 내영토를 주장하며 내영토를 줄을그어놓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내자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속에 온전케 되지아니한 증거입니다. 다른사람이 내영토에 침범하는 순간 무엇이 닥아올지 알라, 당신이 내게 그렇게 할때 두고 보라. 이렇게 하는것은 나자신에게 너무 집착해서 내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 온전케 되지않은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면 될수록 자아집중의 삶이 점점더 줄어들게 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데로 자기도 행할찌니라 (2:6).*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살펴보고 공부해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그에게서 배우고 그를 공부해야하는 이유는 저안에 거하는자는 그가 행한대로 행해야하기때문입니다. 나의 생활에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어야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더라” 는 말씀을 신약성경에서 몇번이나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실때마다 항상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도와주도록 그의 마음이 움직인것입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형제를 보고도 마음문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속에 있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가 행하신것처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의 연약함과 병에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것처럼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 이니라 (2:7-11).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기분나쁘게 만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견딜수 없어. 정말미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당신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있습니다. 빛가운데 행한다고 말할찌 모르나 당신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장님이고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이 가는길을 볼수없습니다. 어두움은 당신의 눈을 가리워 보지못하게 합니다. 미움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차 있을때 우리는 거기에있는 가치와 좋은점을 보지못하고 보려고도 하지않습니다.

사랑은 빛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비틀거리지 아니합니다. 사랑이 길을 밝혀줍니다. 이것이 복음전체의 기반이고 모든 복음이 사랑의 개념으로 요약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요한이 말한것과 같이 그의계명은 무거운것이 아니며 오히려 놀랍도록 좋은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것은 건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것은 아주 불건전합니다.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사랑은 당신얼굴에 빛이 나게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것을? 그들의 선에 엔돌핀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 넘으로써 사랑할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면 화학물질이 활력소를 삼켜버려서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고 보기에도 흉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간단한 사랑의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다음 공부에서 우리는 요한이 아이들과 아버들과 청년들에게쓴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장의 중간에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속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것처럼 우리들도 행하며 그가 반응하신것처럼 반응하게하시고 그가 사랑하신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진실과 행동으로 하도록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주를 세상에 보여줄수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 장에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겨놓은 12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지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있는것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전혀 행동을 다르게 할수있습니다. 내가 말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죄 없다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저 안에 거한다 하고 말하면 나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내 형제를 미워하면 나는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제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2:12-13)*

여기에서 요한은 영적성장을 말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갖 영접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안에있는 갓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우리가 만난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에게 할말은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해주는것입니다. 그거 참 좋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안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아는것은 단지 그들의 죄를 용서 받았다는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리에 익숙치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과 천사들의 본질에 대하여 아는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인에 대해서도 잘모르고 중요한것들에 대하여 조금밖에 모르며 그들이 용서 받았다는것을 알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는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말하자면 유아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할 사실은 죄를 용서받은것 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질때 주님은 청년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다시 그리스도 께서 항상계셨다는 사실의 선언이 여기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요 1:1-2).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하하여 천사의 부류에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와 증인은 예수를 미가엘 천사라고 합니다. 미가엘은 천사장 이었고 피조물이었습니다. 미가서에서 미가는 그분의 출생지를 예언하면서 베들레헴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딤크 5:2) 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원” 으로 번역된 두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문자 그대로 “사라지는 점에게로” 라는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생각할수있는 최대한의 과거로 돌아가보는것을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여기에는 논쟁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들은 우주가 1,200 억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봅시다. 1,200 억 년전 우주가 존재하기 시작할때로 돌아가봅시다. 그 다음에 10 배 전인 12,000 억 년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2,000 억년 전을 상상이나 할수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보다 더 전의 과거로 돌아가봅시다. 1 조년 전, 또 10 조년 전, 또는 100 조년전으로 말입니다. 그 사라지 는 점 (소점) 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멀리 돌아가야할까요? 당신의 마음은 그곳에 다다르 기전에 몽롱해 질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소점 즉 사라지는점에 도달할것입니다. 그점을 넘어서면 마음에 이해도 상상도 할수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의 단어인 ‘영원’ 이라고 번역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단어는 문자 그대로 “소점 (사라지는 점) 을 지나서” 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돌아볼수없는 소점에 이른후에는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단어를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사용했습니다. 그 소점을 지나서 계시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분 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임명하신분 이였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했던 태초입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주 예스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사 우리가운데 거하시니라.” 아버지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원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은 승리를 체험한 사람들이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전선의 선두에 세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뒤에두고 그들로하여금 배우고 발육하게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기 시작할때 번번히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증가하도록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그것이 우리의 성장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발전하게 하는것 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과의 관계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기위한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능한 문을 다 닫으실때 감격을 느끼는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어떤일을 하고 계시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행하시려 하시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으실때엔 일반적으로 당신은 좋은 형편에 있습니다. 돌아설만한 어떤곳도 없으므로 당신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말하기를 “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그건 할수없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실수있는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신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의 궁극에 도달하는것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것” 이라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는 그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것이 성경 구절인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진실이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빈번히 우리가 자원이나 재능이나 방법이 다할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많은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기 전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무 서둘러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좋은방안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기쉽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우리는 성공 비결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때문이죠. 우리는 그성공 비결을 팔아먹고 또 적절한 조화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고 모든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과 절망의 자리까지 다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후 주님이 역사하실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날 무엇을 하셨는지 도저히 믿어지지않아” 라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난후에 되돌아가서 같은 경과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엔 선언 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런후에

*아버지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2:14b).*

그들에게 똑같은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청년들로 바꾸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2:14c).*

제일 먼저 요한은 “너희가 흉악한자를 이기었음이라” 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은 강력의 비밀이 무엇이며 그들이 흉악한자를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해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 그것이 항상 적을 대항하는 강력이됩니다. 우리중에 영적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앞섰다 하더라도 원수의 공격에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무도 사단의 공격에서 면제될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받는것 이상으로 자랄수는없습니다. 실제로 많은경우에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앞에 놓여있는 시험은 더 큼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의 수준을 넘어서 자라지않습니다. 즉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의 씨름하는 수준을 능가해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강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마음속에 거하는것 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과 하나님께 범죄하지않도록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사단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때 그는 그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그의 능력의 비결은 그의 마음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에 의해 걸려 넘어지는 수가많은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바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않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게 되는것을 기뻐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마음에 거하셔서 악한자를 능히 이길수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명령 합니다.

*이 세상이나 (즉, 당신주변의 물질세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2:15).*

이것은 참으로 강한 표현인고로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주인을 섬길수도 없지만 또 섬겨서도 안됩니다. 맘몬 (재물의 신) 은 세상의 물질적인것들과 금융 제도를 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수없습니다.

이제 요한은 세상이 무엇인가를 정의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좃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좃아 온 것이라(2:16).*

사단이 시험하러올때 시험은 이 세부류중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는것을 확인 하십 시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중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사단 이 공격하는 영역들입니다.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서 사단이 동산에 있던 하와를 시험하러 왔을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하와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육신의 정욕 대로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보암직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수있어”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하와를 넘어 뜨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단이 예수께 나아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고 한것은 육신의 정욕을 노린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약속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한것은 놀라운일을 행하여 네자신에게 관심을 끌게하라는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러한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때 노리는 영역들이며 이것들은 세상에 속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단이 이러한 영역을 공격하는것이 역사적으로 어떤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의 악이 성하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12,37). 노아의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한것처럼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킬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사단은 잡지나 빌-보드 영화 등등의 많은 자료들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했으며 그것을 막을길은 전혀 없는것같습니다. 이러한방법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함께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육체적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만드는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범위 밖의 일입니다. 만일 누가 세상, 즉 세상의 제도, 또는 세상에 일어나는일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속에 있지않기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유를 받아서 남용하는 큰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려하면서 세상과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벨리알과 연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빛을 어둠에 섞을수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십시오. 내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것이 있는가? 내가 세상일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는가? 내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겐 없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2:16).

이제 요한은 합당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2:17a).*

만일 당신의 삶이 세상일에 얽매여 있다면, 다시말해서 당신의 삶이 거기에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욕심도 정욕도 사랑하는 마음도 지나갈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결국 당신은 없어질것들에 투자하고 있는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17b).*

그것은 참으로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빈번히 영원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잃는것입니다. 우리가 이세상에 사는동안에 세상일에 너무 어울려 우리의 시야도 희미해지고 영원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잃게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에 대한 의식을 잃을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출입을 할수있게됩니다.

시편 73 장에서 아삽은 그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드나든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사단은 실제로 그의 마음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거의 실족할뻔 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뻔 하였으니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 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관점은 바르게 되었고 영원한것을 보는 시야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한것은 그러한 이유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 살때 세상풍조에 휩쓸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보는 시야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것은 아주 중요하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것들이나 우리가 추구하는것들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기위함이며 우리가 참된관점을 가져서 없어질 물질에 빠지지않고 오히려 영원한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교정하는것이 우리가 성소 에서 체험하는 경험이 되어야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것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실때 우리의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때 그는 항상 영원한 관점에서 보십니다. 내가 일시적인 관점으로 볼때 많은 경우에 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무얼하고 계시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으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게 이런일이 생깁니까?” 왜냐하면 나는 일시적인것들과 물질의 이점을 보고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과 이점을 보시기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걸음 물러서서 긴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것을 다시금 깨닫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렀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인줄 아노라 (2:18).*

예수께서 “마지막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구세주 라고 주장 합니다. 그러한일이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그들이 마지막때에 살고있는 징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세대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다 라고 믿게되는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기를 원하시는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곧 오실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것을 인식하는것은 교회의 정화에 가장큰영향을 주는것중의 하나로서 다른 어떤것보다 우리의 관점을 바르게 해주는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보시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내가 믿기엔 20 년 내에 주님이 오실것같습니다. 주님이 20 년 내로 오시지않으면 나는 큰 충격을 받을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닫는것이나 생각하는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오실 것 입니다.

제 사건으로는 우리 모두와 젊은이들을 위해 주님이 아주 빨리 오실것같습니다. 내가 믿기에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좀 더 관심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25 년 전보다 오늘날 더욱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5년 동안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경의 예언들이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별히 예언의 성취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점점 종말로 닥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마지막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마지막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모두가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순간에라도 중단될수있다는것을 깨닫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물질에 너무 애착을 느끼지 않게하기위함이며 가볍게 살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인들 에게 그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때가 이르나니 결혼한자는 결혼 하지않은자 같이 지내야하리라.” 다시말하자면, 당신의 첫번째 우선순위는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는것 보다 하나님을 섬기는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과의 접촉은 가능한대로 가볍게 해야할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것입니다. 너무 깊이 뿌리박지 마십시오. 세상의 제도에 너무 억매이지말고 순간적인 통지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때 그냥 던질수있도록 하십시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것을 기다리 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복수로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던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 관해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19).*

건강한 몸은 체내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수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연약하면 더 이상 독소를 제거할 능력이 없게되며 곧 죽게됩니다. 그래서 독소를 스스로 제거할수있는 몸이 건강체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20).*

안다는 뜻의 두 헬라어단어가 있다는것을 언급했습니다. 첫째단어가 “기노스코 (ginosko)” 이며 경험으로 아는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오에티스 (oetis)” 는 직감으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무엇이 이런 특수한 헬라어 의 단어이리라고 믿으십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것을 경험으로 아십니까? 모든것을 경험했습니까? 다행히도 나는 경험하지 않았습디다. 나는 많은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모든것을 경험으로 알지않습디다. 그러나 그것들을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모든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직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흥미롭고도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지않은 사람을 다루는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이 한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것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이해력도 주셔서 그것을 확실히 보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야, 그건 그렇게 될수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할말도 주십니다. 많은경우에 알긴 아는데 설명할수없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어떻게 알아 요?” 그러면 당신은 대답하기를 “응, 나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난 알아요.”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걸 알리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말합니다 “난 알아 요.” 당신에겐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고 성령이 당신에게 사람들이나 환경에 관한 직관적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특별한 사건에서는 사람에 관한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간것은.” 이 직감은 그들이 참으로 우리에게 속하지않았음을 아는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2:21).*

다시 이 두단어들은 헬라어로 “오에티스 (oetis)” 이며 직관적 지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것을 압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위하여 죽으신것을 압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한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를 시도해보십시오. 여러가지 의문과 잘못전달하는것과 모든일들이 벌어질것입니다. 당신은 압니다. 아는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벌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신이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심령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할것 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이 알수없었으니깐요. 당신도 다른사람들과 똑같았을것입니다. 알지못하고 어두움에서 방황할테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2:22a)*

내가 말했던것 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못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믿습니다. 예수그리스도 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는자들 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22b).*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난 모르겠어. 나는 예수가 선한 사람이고 예언자인건 믿지만 ...” 아니요, 예수가 선한사람이라는것으로 지나칠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일치하지않는게 너무 많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거짓말쟁이 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쟁이를 선한사람 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기꾼 이며 속이는자인데 어떻게 그가 선한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습 니까? 그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든가 아니면 속이는자요 거짓말쟁이이며 또한 사기꾼 입니다. 따라서 그는 선한 사람이 될수없죠. 그는 가장 나쁜 허풍선이었을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2:23a).*

“하나님은 믿지만 난 예수는 안믿어.” 아니요,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의심하지않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것은 그들이 어떠한 신을 믿느냐 하는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이방신들이 있다” 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최상의 존재이신 그분을”. 그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관하여 말할때 그는 천지의 창조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는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에게 올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나아갈수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구약성경의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올때 동물을 희생으로 드려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 나는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행과 정직을 보아서 나를 받아주실것입니다.” 당신의 신은 당신을 받아줄지모르나 그 신은 당신의 성경에 계시된 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선행은 그의 눈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믿는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일을 믿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연결이있고 아들이없는 아버지나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부인하면 다른 한쪽도 부인하는것이고 한분을 받아 들이는것은 다른분도 받아드리는것입니다. 두분이 다 한꾸러미로 함께 가는것이지 분리 할수 없습니다. 흠정역에서는 던부친것이 있습니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23b).*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본문에 던부쳐진것입니다.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는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본문에 던부쳐진것임을 나타내기위한것이며 더 추가하는것없이 전체적인 생각을 나타내기 위한것 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자에게는 아버지가없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2:24).*

그들의 신앙을 시작할 때에 그들은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시기위해 오셨습니다. 그사실을 굳건히 붙잡고 그것이 마음에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이유는 당신이 계속해서 아들과 아버지안에 거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2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6). 그리고 예수께서 3 장 36 절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11:25-26).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것이며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나는 영원히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낼계획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나는 그곳에 있을것입니다.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26-27).*

이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고 선언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배우려고 한다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미있는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더라도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그것이 선명히 이해가 되어서 “와, 그거참 좋군” 하는가 하면 어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사람이 무슨 얘기를하는거지? 이거 언제 끝나는거야? 네가 알다시피 내가 밥(Bob) 에게 가야하는거 알잖아?” 그다음에 무슨일이 일어납니까? 어떤것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배울수없습니다. 비록 당신이 진리를 듣거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찌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거나 이해할수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전 2:14-15).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없다고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지않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증거하시고 진리를 심어주지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가르침은 성령으로 부터 오며 당신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속에 거하게됩니다.

재미있는 일은 내가 내 자신의 테잎에서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빈번히 나 자신의 테잎을 듣습니다. 나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말했어? 내 목소리인걸 보면 분명히 내가한거지. 나는 그말한걸 기억하지 못하는데. 참 좋군, 놀랍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로인해 그렇게 될수있다는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것을 가르칠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에게 완전히 열려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영적인것들을 배울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하는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길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옵소서.”

아이들아,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뇨? 저 안에 거하라. 그것이 멧세지이니 -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2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가 행하신것 같이 행해야 할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눈깜짝할 사이에 나를 집에 오라고 부르신다면 그순간에 내가 무얼하고 있을까 생각 해봅니다. 주님이 교회를 휴거시키십니다. 나는 무얼하고 있을까요? 말 하겠습니다. 내가 하지않아야할것을 말하겠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풋-볼 경기가나오는 텔레비존을 보지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램 (Ram) 팀과 뉴욕의 자이언트 (Giant) 팀이 경기할때 더욱 그러합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시간낭비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시간 낭비 하는것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팀이든 경기하는것을 보고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때 설교하고 있는것이 오히려 더 나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떠들하게 “좋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있는지 보십시오” 라고 말할수 있을테니깐요.

주님이 어느때나 오실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때 부끄럽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가능한한 이용하며 하나님이 주신시간을 사용하라고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때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2:29a)*

그가 의로우신줄을 아십니까? 그분이 의로우신줄을 어떻게 아시죠? 오에티스 (oetis – 직관적 지식) 로 인가요 아니면 기노스코 (ginosko – 경험적 지식) 로 인가요? 우리는 그분이 의로우심을 성령을 통하여 직관으로 압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29b).*

그것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경험으로 그들을 볼수있기때문에 의를 행하는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들임을 알수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이 한구절에 있습니다.

## 제 3 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3:1a).*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는지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입양하셔서 그의 아들 이라 부르실 그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하셨는지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나 (3:1b-2).*

이젠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천과 변화가 일어날 휴거는 기대하지 말아야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것은 내가 모든것을 깨닫기 전에 단 한시간 동안 만이라도 천국에 가 있는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친교도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돌연히 내가 말하기를 “야, 공기가 참 맑으네, 내가 어디에 있지?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당신은 한시간이 지난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급진적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며 매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영광중에 주님의 목전에 왔을때에는 어떠한 급진적인 변화도 없게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달했을때 우리의 마음엔 무엇으로 꽂차있을까요? 그와 함께 교제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와함께 나눌 그를향한 사랑으로 꽂차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마음엔 무엇으로 차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차 있어야 할것입니다. 180도 다른 급진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거할때 우리의 있는힘을 다하여 이길을 마치고 난후 휴거되면 다른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변천은 거기서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성경이 재미있는것은 천국이 무엇과 같을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사도 바울은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년 전에 그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고후 12:1-4). 천국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는것은 범죄하는것입니다. 이것들을 표현할 적절한 사람의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제한되어있고 충만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실제로 표현할수 없기때문에 묘사하지않고 내버려둔것입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9-10).

내가 하늘나라를 맛본적이 있습니다. 내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특별한 역사를 하셔서 나를 황홀한 상태에 데려가셨습니다. 나는 말할수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깊은 영광의 평화를 느꼈지만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하늘나라의 정경의 몇가지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을 말로 묘사할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장님인 한자녀가 있다면 어제저녁에 본 해지는 광경을 그에게 묘사하기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렌지도 본적이 없고 빨강이나 구름과 아름다움, 사라져 가는 파랑고 빨간 불꽃 이나 이 모든것을 본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석양의 아름다움을 적절한말로 묘사하겠습니까? 그것을 묘사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정경을 묘사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보게, 하늘 나라는 우리의 믿는것이나 상상을 초월해서 훨씬 더 영광스럽다네” 라고 말할뿐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 (고전 15:35). 그리고 그는 우리몸이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하여 많은말을 하려고 하지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진몸보다 크게 탁월한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썩을것으로 심고 썩지아니할것으로 살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것이며 육의 몸 이 있는즉 또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고전 15:42-44 참조). “우리가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9).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죽은자의 부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새몸 - 그것은 땅에 심은 몸이 아닙니다. 연약한 무릎이나 시력이 나쁜눈이나 대머리나 주름살을 가지지 않으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아직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은 영광 스러운 새몸일것입니다. 조금도 염려하지않습니다. 내가 아는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는것 같이 나도 주님처럼 될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며 나도 그와 같이 될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3).*

내겐 이것이 교회를 가장 깨끗하게하는 소망 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모습 처럼 변할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참여할뻔했던 일들을 나로 하여금 하지못하게



막아줍니다. 여러가지 시간낭비할 일들을 하지않게되는것은 주님이 곧 오실것과 나의 시간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며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 하기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3:4a).*

여기에서 “짓는다 (commits)” 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또는 “죄중에 산다” 로 번역 되어야합니다.

*죄를 짓는 자(죄 가운데 살거나 죄를 반복하는자)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없이 하려고 나타내신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4-5).*

1 장에서 복수인 죄는 열매 혹은 결과라고 했으며 단수인 죄는 우리속에 있는 죄의 본성 이라고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에 관하여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는 말은 그에게 죄의 본성이 없다는뜻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인하면 내 스스로 속이는것이며 내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죄 없다하면 내게 죄성이 없다하는것이므로 나 스스로 속이고 있을뿐입니다. 만일 내 죄성이 열매를 맺은적이없다, 즉 범죄한적이없다 고 말하면 그것은 더 나쁜것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겐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 에게서 났습니다. 베드로가 말한대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점은 타고난 결함 을 말하며 그에게는 타고난 결함이 없었습니다. 흠은 타고난후에 생긴 결함이며 그에게겐 그것도 없었습니다. 내겐 두가지 곧 점과 흠이 다 있습니다. 내겐 타고난 죄 즉 죄성이 있으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열매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할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케 하십니다. 누구든지 반복해서 죄를짓는것은 법을 어기는것이며 죄는 법을 어기는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죄가없으신 그가 내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죄를 없이하려고 오신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3:6).*

아주 능력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한다면 나는 실제로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실제로 그분을 본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분을 안다면 내가 범죄와 멀어질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3:7a).*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3:7b).*

그리스도는 순결에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는 의에 관하여도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의로우신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8).*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만일 죄를 반복하거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에 속하며 사단을 따르는것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3:9a).

“그의 (His)” 라는 말이 성경에 있으며 그것이 예수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영어성경 에는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3:9b).

아시는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나는 중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난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난것이 중생입니다.

나는 죄성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죄성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그리스도께서 하신일을 통하여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본성을  
가졌습니다. 내가 적절하지않은, 비천하며, 더럽고 추한것을 할때 “당신이 알다시피 그건 옛근성이야”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 본성을 가졌기때문에 나는 중생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는것은  
당연한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치 않은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말이 아니라  
내게 부자연스러운것으로 되었다 는말 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인 그의 씨가 내안에 거하기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수없습니다. 죄를짓는것은 나의 새로운 본성과 정반대이며 나의 새본성을 반대하는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질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새본성에 너무나 반대가 되므로 나는 견딜수없고 불안해서 즉시 그것에서  
빠져나와 “주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바보였어요. 저는 장님이었고 어리석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할것입니다. 내가 죄중에 살면 불안해서 못견딜것입니다. 나의 새본성으로 인해 죄를 지으면 비참해지겠죠.  
나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새 본성을 가졌기때문에 죄를짓는것은 격에 어울리지않습니다. 그사람의 인격은  
그본성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본질적으로 돼지입니다. 그리고 돼지에게 특정한 자연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환경에 놓으면 대단히 불안해 할것입니다. 돼지는 본성으로 진흙탕에 들어가기가좋아하며 꿀꿀거리고  
흙탕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악취를 내고 본래 냄새가나는 동물로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돼지를  
흙탕에서 꺼집어 내어 향수가 나는 비누로 깨끗이 씻은후 향수를 발라 방안에 데리고 가보십시오. 그것이  
돼지에겐 자연스러운것이 아닙니다. 그동물은 당신의 응접실에서 대단히 불편하게 느낄것입니다. 아마  
이리저리 다니면서 빠져나갈 길을 찾겠죠. 냄새나는 진흙탕으로 돌아가고싶을것입니다. 내가 돼지라면  
흙탕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게좋아. 이게 내본질이니까” 라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사람들에게 맞지않는것입니다. 개혁 이상의 것이 필요하며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이리 오너라, 너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으로는 되지않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받으라” 고 하며 본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의를 행함이 당연한 것으로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씨인 성령이 내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본성이 내속에 심어진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 드리기를 위한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크리스찬들을 보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수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가 돼지이기 때문에 흙탕에서 행복하며 깨끗한 삶 즉 순수한 삶을 산다는것은 상상도 할수없거니와 그의 본성에 전적으로 반대 되기때문입니다. 그는 새환경에서 아주 불편스럽게 여길것입니다. 또 사단은 빈번히 그것을 믿음의 결정을 내리려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저런 크리스찬들 처럼 살수없어. 그들이 사는것처럼 살아보고싶긴 하지만 그건 내겐 맞질않아. 나는 그렇게 못해.” 물론, 그렇게 할수도 없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않는다면 그렇게 할수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의 씨가 내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고 이 새로운 본성으로 죄를 지을수 없습니다. 만일 죄를 짓는일이 불편스럽게 느껴지지않는다면 새 본성을 가지고 있지않기때문입니다. “오, 그런데 나는 빌리그래함 전도집회에서 손을 들고 그앞에 나갔는데.” 상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성의 변화가없으면 그는 진실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나타나나니 (3:10a).*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수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3:10b).*

만일 당신이 의로운 생활을 하지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습디다. 당신이 무슨 고백을 하였는가 나는 상관 없습니다.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3:10c).*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한울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것을 기억하실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지 않은것입니다. 그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자는 하나님께서 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찜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3:11-13).*

당신의 행위는 의롭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그들이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에 죄의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죄책감 느끼는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미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바른짓만 하는구나. 아이구, 네가 다른 사람들 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그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2,000 불이나 들어있는 값비싼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찰에 넘겨 주는것을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에게 여러가지의 미움으로 찬 편지와 생명을 위협하는 편지도 보내고 온갖짓을 다하는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히고 미련한 바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옳은일을 하고도 여러가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인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한다고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3:14).*

내가 사망에서 옮겨졌는지를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수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알리라 “ (요 13:35). 세상에게 보여줄 가장큰 증거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할때 그들이 참된 크리스찬임을 알게됩니다. 그것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그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주셨기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3:15).*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는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압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기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줄을 압니다. 다시말하자면, 앞에서도 말한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려 할때엔 항상 십자가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위하여 다른 어떤방법도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는 항상 좋고 형통하고 행복하며 쾌활한 당신의생활 환경으로 당신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명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 시작할때 눈을 돌려 그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3:16).*

예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 15:12-14).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몸을 위하여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3:17).*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번영하며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형제가 아주 궁핍한것을 보고 그를 돕기위해 손을 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속에 거한다고 어찌 말할수 있겠습니까? “오, 예,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가여운 형제,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안됐어요. 나는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터-키 가 없다던데, 수치스러운 일이네요. 크리스마스에 빅맥 (맥도날드의 햄버그) 을 먹어야 하니, 형편이 말이 아니군요. 오, 그렇지만 난 그를 사랑해요. 오,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만에, 당신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그들을 실제로 사랑할수없기때문에 그들이 궁핍할때 당신의 마음문을 닫고 그들의 필요한것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져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속에 거할수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안에 거한다고 말할수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18).*

말로하는건 쉽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겠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긴 쉽습니다. “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섹스피어가 말한것이 무엇이었죠? “당신은 이의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나를 볼때마다 “오,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항상 의심해봅니다. 내주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중에 그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그가할수있는 최상의것은 내등에 칼을 들이대는것이었습니다. 오 그는 날 무척 사랑했습니다. 예, 예, 예, 말로만 사랑했지 사랑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말고 행동으로 보입시다. 표현하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이 더 좋습니다. 남을 위해 손을 펴서 도우고 전화도 하며 격려하고 필요에 따라 제정적으로 도우며손을 펴서 서로 도우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으로 사랑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3:19a).*

내가 진리에 속한줄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내가 진리에 속한것을 알수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3:19b-20).*

때때로는 우리마음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가끔 우리를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사단의 정죄로 고통을 당합니다. 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수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혹평하여 말합니다 “왜 내가 그말을 했을까? 오, 왜 내가 그말을 했어?” 그리고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때 한 말로 인해 잠을 자지못합니다. 그들은 두려워 합니다 “내가 하지않아야할 말을 했어. 이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거야.” 또 그런일로 고통을 당하는 성격의 가진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거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책망하지 않을것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자신을 책망한다 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롬 8:1). 우리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 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3:21-23).*

첫번째 부분인 “무엇이든지 구하는바를 그에게 받나니”를 약속으로 받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절이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에 몇가지 놀라운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광범위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 21:22).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취하여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것은 무엇이든지 가질수있습니다. 벤-즈도 가질수 있습니다. 리-도 섬과 같은 부잣동네 에 살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오직 필요한건 믿음입니다. 원하는것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갖게될것 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에게?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 하십니다. 무엇이 제자가 되게 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4). 그위에 이것으로 먼저 인을 쳐야할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뜻은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것이 벤-즈와 같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위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때 확신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유익이나 재산의 증식을 향한것이 아니며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것이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게되고 복받게 하기위한것이기때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3:23a).*

이제 요한은 계명에 대하여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명과 계명을 지키는것에 관하여 좀더 말하려고 합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3:23b).*

그게 전부 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라는것과 하지말라는 품목의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디다. 그가 말하는 전부가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것입니다. 예수 께서 아주 간단하게 줄여주신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것입니다. 그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것이기에때문에 기억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기 어렵고 무거운 짐이나 긴 목록을 주시지않았습디다. 단순히 “예수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3:24).*

그가 우리안에 또는 내안에 거하시는줄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3:24).*

하나님은 내 삶을 성령으로 채우셨습디다. 나는 성령이 내안에 거하시는것을 압니다. 그가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것을 가르치시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것이 생각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라는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케 되며 그 사랑이 증가되고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붙이는것들이 가볍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그정욕도 다 지나갈것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자는 영원히 거하게될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것에 흥미를 느끼고 영원한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 지도록 도와주옵소서.



# 1 John 4

## Tape #C2635

요한일서 4 장으로 가 봅시다. 되돌아가 3 장 24 절을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1:14). 그는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소유권의 인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며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려는 의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보증으로서 완전히 사서 소유하게 될 때 까지 주신 것입니다.

4 장 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4:1).*

예수님은 마태복음 7 장의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 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고 하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도 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속기쉬운 것 중의 한가지는 거짓 선지가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틀렸다고 생각 하는 것입니다. 빈번히 거짓 선지자가 90% 진실을 말할 때 그것이 사람들로 속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진실입니다. 사단이 와서 많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니?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빼 놓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사단은 성경 말씀을 문맥이 맞지 않게 취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결론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 사역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된 교리들이 있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거든 경계 하십시오 “이 봐,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책이야. 성경을 읽지 않는 게 가장 좋아. 성경을 설명하는 우리 책이나 읽어. 성경을 잘 설명하는 우리 책을 읽지 않으면 그 어려운 책을 평생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들이 책들을 팔러 다니거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말할 때에는 언제나 그들을 경계 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읽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아닌 책들을 읽을 때 우리는 잘못된 것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이들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난후 그들은 이상한것들을 꺼집어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은 “그저께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걸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나는 묻습니다, “여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온것 입니까? 그건 성경을 읽어서 나온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와 증인이나 몰몬교리에서 나왔거나 다른데서 온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그럴듯한 문제가 생겨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버트 암스트롱 (Herbert Armstrong) 으로 부터 나온것을 가지고와서 하는말이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생각한것이 아닙니다. 어떤이가 당신의 마음에 바보같은 생각을 심어준것 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런 생각이 나올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시다. 당신의 성경해설이 이상하면 틀린 해석이 나왔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뜻하시는것을 말씀하셨기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진리의 밭에 도달하는것에 관하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은 왜곡된 사상을 가졌고 “오, 성경은 읽지마세요. 우리 책을 읽으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책을 읽지않고는 그들의것과 똑같은 이상한 왜곡된 진리가 나올수없기때문입니다. 아주 야비한짓 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계시록 7 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144,000 명을 인치시며 각지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등등...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것을 인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며 그것은 실제로 교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영적으로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7 장을 읽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찾을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거나 다른 사람들이 읽고난후에 “아, 그것이 참뜻이구나” 라고 말해줄때 “오, 그거 참 재미있군, 전엔 그걸 몰랐네” 할것입니다.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이며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찌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4:2).*

그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것” 을 표면적으로 본것만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수는 그의 이름이며 히브리어 여호와-슈아 (Jehovah-shua) 또는 여호수아 (Joshua) 의 축약된 것입니다. “여 (Jo)” 는 히브리어 여호아 (Jehovah) 의 축약형 입니다. 여호수아 의 “슈아 (shua)” 는 히브리어 이며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어의 메시야 (Mashiyach 나 Messiah) 혹은 기름부음 받은자 에대한 헬라어가 그리스도 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이시며 기름부음 받은 메시야 이십니다. 만일 그들의 증거가 이것과 같지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많은 진리와 찬란한것들을 말할수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육신으로 오신 여호와-슈아 (메시아) 이심을 부인하면 그들은 거짓선지자들 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3).*

오늘날 대단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4:4).*

3 장 24 절로 돌아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안에 거하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더 크 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4:5).*

그들의 메시지는 세상이 듣기좋아하는 인기있는 메시지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능력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광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6).*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한 그들의 증거로 그것을 알수있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7-8).*

하나님의 영을 알수있는 둘째방법은 내삶에서 영의 열매가 사랑인가 하는것입니다. 즉 서로를 향한 사랑 말입니다. 사랑하는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만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면 그것이 내속에 거하는영이 성령이심을 증거하는 것 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수도 있습니다, “내게 성령이 계신것을 난 알아.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알수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우리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사단도 가짜 방언을 할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안에 거하신다는 참된 증거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될뿐입니다” (고전 13:1). 그것은 의미없는 소리입니다. 다만 증거는 사랑일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예수그리스도가 주신것을 증거하므로 성령임을 알게됩니다. 내 삶에 거하는 영의 열매와 결과 가 사랑 즉 그리스도안에 있는 내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이면 그것이 성령임을 알수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것들을 사랑하는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 할수있다면 당신에게 성령이 계심을아는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감상적이거나 사랑인체해보이는 할리우드의 노폐물 (junk) 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가족단위안에 가지는 형제사랑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Eros) 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Phileo) 라는 사랑도 있으며 깊은 감정적 사랑인가 하면 에로스는 육체적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감정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수준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영적 수준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사랑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에로스 (육체적 사랑) 에 빠져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영어에는 헬라이어처럼 광범위한 뜻을 가진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어로 사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넓은 의미를 포괄하는지 살펴보십시오. 땅콩에서 부터 나의 손자 와 내 아내와 밀크 초콜렛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합니다. 나는 모두 다 사랑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밀크 초콜렛을 사랑 (좋아) 하는 (love) 것과 내 아내를 사랑 하는 (love) 것이 다르지만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이어 에서는 다른종류의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밀크 초콜렛에 대한 사랑은 내집작에 에로스 즉 육체적인 사랑일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서로 사교하는것을 정의할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귀에 속삭이며 말하기를 “난 널 사랑해 (eros), 얘이야, 나는 너에게 강한 성적 매력을 느껴.”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입니다. 나는 유익을 얻는 관계를갖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것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는것 즉 나의 만족을 느끼는것입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 은 좀더 깊으며 상호간에 주고 받는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것들에 동의하고 서로의 이해를 나누며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결혼은 50/50 의 제안입니다” 라고 말한것 처럼 그것은 주고 받는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는것을 전혀 보지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75/25 가 더 맞을것같아요. 그러나 누가 75 를 가졌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주는것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 고전에 사용되지않은 단어이기때문에 이 단어는 거의 예수님 자신이 신약성경에 만들어 넣으신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정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람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그 단어의 정의를 내려야합니다. 그것이 모두 언어에 관련된것으로써 어떤소리는 어떤의미를 전달한다는 상호간의 동의입니다. 아가페 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약성경의 두군데 에서 이단어를 정의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믿는것 입니다. 그것들이 다 아가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전서 13 장에서 다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다른사람중심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는것이며 갚아주기를 바라지않는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돌려받기를 기대하지만 아가페는 돌려주는것을 바라지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너 나한테 빚졌지. 너를 우리집에 두번씩이나 초청했는데 네가 나를 초청할때까진 다시 부르지 않을거야.” 서로의 이익을 위할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따지지않고 주는것입니다. 사랑은 주는것이 본질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사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사랑이 내안에 있는영이 성령이심을 증명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사랑할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대한 그들의 증거는 무엇이였습니까? 그 영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참하나님 이시라고 내게 증거 합니까? 그렇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단이 그것은 가짜를 만들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8).*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기위해 쓰여졌다, “하나님은 사랑 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4:9).*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오, 나는 밖에 나가서 자연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연이 말해줍니까? 당신이 밖에 나가 자연과 대화할때 늑대가 작은 토끼에게 뛰어가 잡아먹는것을 보았습니까? “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연이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사자가 양들을 물어뜯는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독사가 푹푹말고있으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해주지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있는것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 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자연을 보고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자가 양과 함께 누어있고 사자가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는것을 보지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지 못하는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타락한 자연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해주지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증명하시려고 십자가외에 다른 어떤방법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는 의심 하지 않도록 하기에 충분한것입니다. 만일 사단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것을 허용하셨니? 만일 하나님이 너를 사랑 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라고 질문하면서 도전하면 그는 비변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유력한 증거를 내놓을수 있다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져있는 곤경상태에 빠져있는걸 봐도 알수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도전하고 패배시키려고할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를 위하여 단한번에 모든것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 십자가를 바라 보기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4: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를 통하여 살도록 하셨기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거기서 그의 사랑이 나타난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 사랑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셨기때문에 그의 아들을 당신 대신에 죽도록 이세상에 보내신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내신것입니다.

삶의 성경적 정의는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거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것 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대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면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두뇌가 작용하면 그사람은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코마 상태 에 빠졌고 뇌일혈로 그의 호흡기를 지배하는 뇌의 일부가 파손되어 산소기를 부쳐놓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EEG 를 붙이고 모니터를 주시합니다. 그들이 잔잔한 진동을 모니터에서 지켜봅니다. 그가 거기에 누어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 말좀 해보세요. 어떠세요? 이름을 말해 보세요.”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사람을 꼬집어 봅니다. 그렇지만 반응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를 관찰하던 사람이 “당신이 그사람을 꼬집었을때 모니터에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걸보면 아직 살아있는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니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때 그를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뇌의 활동도 멈추었으며 의식도없습니다. 그때 의사는 “원, 그는 갔습니다” 라고 말할것입니다. 의식은 사라지고 몸만 남았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기능을 다할찌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성경은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것이고 참된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가지는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것이 아니요.” 어떤이들은 그들이 “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말할때 그들은 큰 선심이라도 쓰는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 입니까? 그것이 증명하는 단 한가지는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것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모든 이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그건 큰문제가 아니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할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당신을 아실 때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그 근원을 아시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뭐라고요? 자아를 아는 것, 나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완전히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터 우리를 분리시킨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감당하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몸에 지시고 죄인인 나를 받아드려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되어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살수있도록 하시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11).*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용서와 사랑의 본으로 삼으라고 권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엡 4:32). 내 용서의 측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상당히 큰 명령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인해 성령께서 내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며 우리를 그의 교제에 받을 수 있게 함입니다.

예수께서 1,600 만불 빛진 하인을 가진 주인의 이야기를 용서에 관한 비유로 하셨습니다. 주인이 하인을 불러 명하기를 “빛이 만기가 되었으니 빛진 것을 다 갚으라.” 그랬더니 하인이 “오, 아직 돈이 없으니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만 두어라. 네 빛을 탕감해 주마.” 그는 밖에 나가 자기에게 16 불 빛진 동료하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내게 빛을 갚겠다고 했으니 빛진 것 빨리 갚아.” 그 동료 하인이 말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며칠만 더 여유를 주면 다 갚을께.” “안돼, 네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 그리고 그는 그 동료로 빛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자기하인의 행한 것을 듣고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봐, 자네 내게 빛진게 얼마였지?” “1,600 만불이었습니다.” “그 빛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던가?” “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동료로 16 불때문에 옥에 가두었는가?” “좋아, 그러면 그 빛을 다 내게 갚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돈의 액수를 사용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송두리채 다 용서해주셔는데도

어떤사람이 내게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잊지않을려고 합니다. 첫번째 기회에 보복을 하고 난후에 그것을 잊을수 있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상처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지 못하겠으므로 내형제에게 적개심을 품고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었니?” 라고 물으십니다. “오, 한뭇치요, 주님, 한짐이요.” “그래, 어떻게 너는 형제의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는것이 마땅하니?” 그가 사랑하신것 같이 사랑 하고 그가 용서하신것 처럼 용서하라 는것이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4:12a)*

모세는 어떤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사람이 없었던걸 믿어야겠지만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후광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보면 살수없다. 내가 여기 바위 틈에 들어가있으면 내가 지나가겠노라. 내가 지나갈때 밖을 내어다 본후 후광을 보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후 모세가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할 정도로 빛이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것임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뵈기전에 먼저 새로운 몸을 입어야합니다. 이 현재의몸으로는 하나님을 뵈수없습니다. 어느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4:12b).*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 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안에서 온전케 되는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양보할때 성령충만해지며 내안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안에서 온전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때 나도 그가 사랑하신것 같이 사랑할수 있을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4:13).*

그것은 3 장 24 절에 주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은 것 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한것을 여러번 보게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4:14).*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목적을 다룬 제 1 장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전야를 기억하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 장에서 그의 오신목적은 우리의 죄를 멸하러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그의 오심의 다른 목적을 “세상의 구주가 되려하심” 이라고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4:15).*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몰몬교에서 믿는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아들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여호와와 증인도 그를 하나님의 한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4:16).*

여러가지 증거를 다룰때 그 영을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사단도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안에 거하시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의 열매인 사랑으로 압니다. 성령이 내안에 계시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4:17).*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에서 우리의 본이되십니다. 그가 사랑하신것 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 다” 라는 말씀을 몇번이나 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냉담한 마음으로 돌아서기 보다는 사람들의 필요한 도움에 우리의 마음이 동정심으로 움직일것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안에 온전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날에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게될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안에 있으므로 안전하기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4:18a).*

만일 두려움에 사로 잡혀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안에서 온전해 지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될지 확실치 않아. 이것이 나를 망칠줄도 모르겠어. 이것이 끝장일수도 있어. 이것이 아마 그여자가 쓴글의 전부일꺼야. 좋지않아 보이는데, 헤어날 길이 없어. 무얼 해야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었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것을 알았다면, 무슨일이든 당신에게 벌어지는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것이고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마, 엉망진창 이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일이 되게 해주실거야. 그 사람들이 집은 전당잡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이루실줄로 믿어.” 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의 사랑이 내안에 온전케 되었을때 확신이 옵니다. 나는 무슨일이 닥쳐 오든지 그것을 받아드릴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은 아주 고통스러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4:18b-19).*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여 인간은 반응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시작하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분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심지어 교회안에서도 그러한 가르침이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해 동안 들었습니다. 나 자신도 그것을 한참동안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것이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대한 반응 으로 우리에게 도로 주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시작하고 하나님은 반응 하시는분으로 만듭 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분이시며 나는 그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내 찬양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기 위한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풍성해서 감당할수 없기때문에 드리는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은 좋으십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나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으로 움직이는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단지 이사랑에 대하여 반응할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 반응할수 있게되기위하여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의 선하심을 알아야합니다. 그 사랑을 모두 그리스도안에서 알아야합니다. 그것을 알게될때 비로소 반응할수 있게됩니다. 그러나 알지못하는것에 대하여 반응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여 나는 그에대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라 하고 (4:20a).*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일곱번째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것입니까?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수 있어야 죠. 그렇게 말하는것을 꺾아내리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4:20b).*

스누피 (Snoopy – 만화에 나오는 개 의 이름) 처럼 “나는 세상을 사랑해, 내가 싫어 하는건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찌니라 (4:21).*

한울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서는 당장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이웃과의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의 발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이까?” 라고 질문한것을 기억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계명을 지킬것이니라.”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을때에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고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습니다.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눅 18:18-23). 그가 말한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고 간음 하지도 않았으며 이웃에게 거짓말 한적도 없습니다. 어릴때 부터 이 모든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에 있는데 먹고도 남는 많은 재산을 가졌으며 필요한것 이상으로 많이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웃이 있으며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와주기 싫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모르죠 “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뿐만 아니라 계명도 다 지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 을 살펴보면 당신은 계명을 지키고 있지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 요한일서 5 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5:1).*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예, 나는 중생했습니다. 오,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게 새생명 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 예수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사랑할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5:2).*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계명을 아주 간단한 형태로 주신것을 이제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모든것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농축해서 그 진수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3장에서 그렇게 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것입니다 (요 3:23). 이것이 계명이며 주님께서 축약하여 간단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것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그 진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줄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빈말을 할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때 이로써 그의 계명을 지키는것을 알게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5:3).*

그것들은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첫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것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둘째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것 처럼 서로 사랑 하는것으로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더 어려우며 우리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나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최면상태에 들어가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나쁜사람이 아니야. 그에게 여러가지 장점도 있어. 내가 그친구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돼지. 그친구는 좀 시끄럽고 뻥뻥 스러워. 그리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해.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그에게 적개심을 품어선 안돼. 그래도 난 그친구를 좋아해. 그 친구 나쁘지않아. 난 그친구 견딜수 있어.” 내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릴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난 내가 천국에 가기에 충분할 만큼만 너를 사랑해.” 것처럼 자신의 심리전에 빠집니다. “어이, 너도 알다시피 그친구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런후에 그 사람이 파티에 옵니다. 그가 들어서면서 큰소리로 거칠게 바보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오, 바보 같은 놈, 집에 머물러있지, 여기는 왜왔어?” 오랫동안 걸쳐 나에게 걸었던 체면술을 문밖에서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난다음에 그를 만날 준비를 포함합니다. 너도 알지만 그 친구 그렇게 나쁘지 않아. 난 그친구가 좋아.” 그리고 나서는 또 모든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내마음을 사랑의 상태로 끌어 오려던 노력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맞지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우리들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할때엔 그것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보이는지 알수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죄를 지을때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지은 그죄를 범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추하고 끔찍합니다. 나는 당신을 견딜수 없게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은 내 마음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 낼순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심리적으로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도록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의 주인공 이심이 증명됩니다. 자연적으로는 견딜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것을 경험하게 하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속에서 온전케 됨을 알게됩니다. 여러차례에 걸쳐 이렇게 기도해야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들을 사랑 하라고 하시는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로선 불가능 합니다. 난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내안에 역사 하시고 그들을 사랑할수있는 사랑도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음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걸 압니다. 나에게 그들을 위한 사랑을 주세요.”

이런일에 하나님앞에 전적으로 솔직하고 정직해야하는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바보짓을 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모두를 사랑 합니다. 주님, 한친구가 있는데 제가 마땅히 사랑해야할 만한 정도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의 도수를 높여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앞에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다 하실수는 없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앞에 바르고 정직해야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할것입니다, “하나님, 난 그사람을 미워합니다. 꼴도 보기싫고 전부가 다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사람을 사랑해야한다면 하나님이 하셔야합니다. 주님, 주님이 하셔야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하겠습니다. 제발 제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옵소서.” 당신이 정직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수 있으며 그렇게 하실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동안엔 아무일도 성취되지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셈을 아시기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때 우리자신을 잘 보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추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4).*

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받았을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 12:11). 여기서 우리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개발됩니까? 하나님을 앎으로서 개발됩니다. 어떻게 그분을 알수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계시 곧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알지못하는 사람을 신뢰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거리에서 당신에게 와서 “내일 만나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50 을 빌려 달라고 할때 여러분들 중에 그에게 주고싶으신분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당신을 꼭만나보고싶으니깐요. 제가 \$50 이 필요합니다 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당신이 내게 갚아준다는것을 어떻게 믿을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알지못하는 사람을 믿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속임과 사기와 거짓등등이 많기때문입니다. 많은 사기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알고 정직하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신임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는것은 하나님을 잘모르기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8-29). 왜 그에게 배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신앙이 자라기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믿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5:5)*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석가들의 두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그것이 예수님의 침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로 침례를 받았고 그후에 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에게 와서 “주님, 청을 하나 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때 우리중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또 다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청하는것을 알지못하도다.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능히 받을수 있느냐?” 그들은 “예, 주님, 할수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는말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 “그가 물과 피로 임하신자” 는 그의 물 침례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의 견해는 십자가의 고난 그자체를 가리키며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것을 신학자들끼리 다투도록 내버려둡니다. 두 견해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어느것을 택하든지 크게 틀릴것은 없습니다. 요한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더 오래된 사본에는 7 절이 없습니다. 그 구절이 10 세기까지는 사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니다. 아마도 이 구절은 요한의 원본에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0 세기 이전에있었던 더 오래된 사본에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 절은 아마도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에 있는 유일한 구절로 초기사본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초대교부들중에 고대사본에서 이 특별한 구절을 인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본을 사용했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참고한 교부는 단 하사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원전에 없었던것아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이제 6 절에서 8 절로 갑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무슨 증거를 합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5:8).*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하여 얻은 구원을 증거합니다. 물 침례와 십자가 고난의 침례 혹은 그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피 - 이 두가지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기록을 증거하노라.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너희가 믿게 하려고 기록한것을 증거하노라” 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 장에서 창으로 찌른것을 증거할때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인 면에서 그것을 보면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군병들이 예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을 때 그는 이미 죽어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군병들이 예수에게 왔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나의 생명을 취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도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그의 영혼을 버릴 수 있는 능력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게 “네 불일은 다 끝났다. 이제 떠나라” 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버려 그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 생명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가 그의 영혼을 버렸다” 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이젠 떠나도 된다. 다 이루었다. 좋다.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군병들이 왔을 때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으며 그것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군병이 그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과학적인 면에서 보면 군병이 창으로 찔렀을 때 그 창이 그의 심장이 있는 곳 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의 죽음이 심장이 터져서 파열된 심장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의 심장은 실제로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파열되면 심장을 둘러싼 주머니에 물과 같은 물질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심장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생리학적인 면에서 볼 때 파열된 심장으로 인한 죽음을 시사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가 그의 영혼을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 합니다. 증거하는 자가 셋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한 그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과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증거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5:9b). 우리의 법률체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까? 증인입니다. SPB 은행을 털다가 범인이 체포되어 범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제 무죄를 탄원하여 변호할 훌륭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검찰은 첫 증인과 범인의 이름 및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범인은

SPB 은행의 출납부 직원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에게 묻습니다 “3 월 15 일 오후 2:00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증인이 대답합니다 “한 남자가 내 창구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 종이 봉지와 쪽지를 내게 주었는데 거기에 ‘내게 종이 있다. 돈을 봉지에 가득 채워서 내게 넘겨 주지 않으면 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보입니까?” “예,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사람입니다.” “저 남자가 확실합니까?” “아, 예, 확실합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의 얼굴 아래쪽에 있는 흉터를 보았습니다. 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다음 증인을 부릅니다. “오후 2:00 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예, 우연히도 저는 은행안에 서 있었는데 이 남자가 창구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입니까?” “오, 예, 그가 저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 남자가 확실합니까?” “오, 예,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3-4 명에게 묻고 그들이 다 “오, 예, 그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밖으로 달려 나 갔어요. 내가 문앞에 서 있었는데 그가 도망할 때 하마트면 넘어질 뻔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려고 돌아설 때 그 사람은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그를 마주쳤을 때 그의 손에 권총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후 판사는 선고합니다 “유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증거를 받아 드립니다. 우리의 법률체제는 사람의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두 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면 “야, 그사람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는 유죄입니다. 그들은 사건을 만듭니다. 모든 증거를 다 모아 사람들의 증거때문에 그에게 유죄라고 재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과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으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5:9a).*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은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않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입니다. 빈번히 믿을수없는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이야기를했는데 그의 할아버지가 다 죽어가는게 확실해, 그 친구가 울었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클진대 하나님을 믿어야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5:9b-10a).*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내안에 계시고 내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내 마음에 증거 하는 내적 증거가 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는것은 내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때문입니다. 헬라어의 Oetis (오티스 - 직관적 지식)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안에 있는 성령의 증거로 인해 갖게된 직관적이고 내적인 지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5:10b).*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로 만드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11-12).*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그의 아들안에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떠나서는 영생을 가질수 없습니다. 영생은 양적인 시간의 길이 이상의것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면에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노쇠해 가는 내 육체를 볼때 이 노쇠한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그보다 더 지긋지긋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걸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많이 낙심했을것입니다. 속사람은 새로와집니다. 걸사람은 닳고 쇠퇴해가며 고장이 생깁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해 집니다. 육신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는데 만일 내가 150 년을 살아야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긋지긋한일일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도저히 그때까지는 살 가능성이 없기때문입니다. 침대에서 기어나오지도 못할것 같습니다.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릴것입니다. 이육신으로는 영원히 살수있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것입니다.

참된 나는 나의몸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진정한 나는 나의 영입니다. 육신은 내영이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년수가 더함에 따라 하나님이 설계하신대로 그목적을 달성할수 없게될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나를 표현할수 없게 될때 하나님이 나의 영을 내몸에서 해방시키실것입니다. 나는 어떤 노인들이 사는집에서 썩어지기 싫습니다. 늙어서 겨우 걸어다니면서 사는것은 상상할수없어요. 그이전에 주님이 나를 데려 가시기 원합니다. 쓸모없이 되어 버려지고 싶지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짧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느날 갑자기 어떤방법으로, 교통사고 나 심장마비나 어떤것으로든지 나를 데려가시면 즐거워 하십시오. 내가 이 연약한몸에서 해방된것을 기뻐할것이 분명하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완전히 쇠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닳아가가고 있습니다. 내가 무너질 단계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이 육체를 나쁘게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내게 건강과 모든것 주신 주님께 감사할뿐입니다. 내게 정력을 주신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과 소유 를 감사하며 즐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옛날 만큼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이전 만큼은 없습니다. 이젠 아픈곳도 이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눈도 이전같지 않습니다. 청력도 그러합니다. 많은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영생은 단수히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러합니다. 그것은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롬 14:16).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소유한 질적인 삶입니다.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과 기쁨의 삶과 의의 삶과 평강의 삶에대한 증거입니다. 이 생명은 아들안에 있습니다.

이영생에 대조되는 것을 살펴 봅시다. 솔로몬이 모든것을 다 시도해보았고 쓰라림을 겪은후에 늙어서 쓴 전도서를 기억하실것입니다. 그는 모든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시도해보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전 2:10). “여보게, 나는 모든것을 다 해봤네. 내마음에 원하는건 금하지 않았어.” 그는 재산이나 교육과 과학 및 모든것의 첨단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해볼건 다 해보았습니다. 해아래서 할수있는건 전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후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보게, 허무하고 허무한것 뿐일세. 해아래 있는 모든것이 허무하고 만족한게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이 참고 견딜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모든것을 시도해보니 해 아래있는 모든것이 전부 헛된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안에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히 거하는것이고 영생이며 부요할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불행히도 솔로몬은 아들안에 있는 삶을 몰랐습니다. 아마 해아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줄 압니다. 그것은 비참하고 좌절되며 허무한 삶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들안에 있는 삶을 시도해보셔야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 장 36 절에 예수님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 하신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5:13a).*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1 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가 있게하고 그 교제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위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1:3-4). 2 장 1 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 (5:13b).

이서신의 목적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하려 하는것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5:14-15).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는것을 유의 하십시오. 무엇이나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약 4:2-3).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할때 들으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뜻을 이루는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때 범하는 공통적인 과오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병속에 들어 있는 어떤종류의 요괴 (genie) 가 나와서 우리의 소원 세가지를 들어주는것 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내가 그의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의 뜻에 따라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것입니다.

나는 응답 받지못한 기도에도 응답 받은 기도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나는 엉망 진창이 되었을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지는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는 기도에 확신을 갖게됩니다. 기도의 추진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며 그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 지게 하는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5:16a).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죄 (sins) 란 단어의 의미는 “표적에서 빗나갔다” 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며 실제로 우리 모두가 표적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1 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표적을 맞추지못했으며 만일 우리가 표적을 맞추지못한것을 부인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속에 있지아니합니다. 우리는 모두 표적에서 빗나갔습니다. 만일 형제가 표적에서 빗나가는것 즉 범죄하는것을 보게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것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그의 등을 돌려댈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5:16b).

그 선을 하나님이 넘지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우리의 의사에 반대되는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강요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같이있도록 강요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면 그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는 나와 같이있지 않아도 돼.” 그러나 당신자신의 고통을 선택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신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택한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할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합니다. 빈번히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못합니다. 사단은 속이는데 능숙하여 속이려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대신 거짓을 믿게하려고 강한 미혹을 가져옵니다. 나는 그가하는말을 기억에서 쓸수있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 아내는 날 전혀 이해하지못해. 난 실제로 그 여자를 사랑한적이 없어. 내가 그 여자와 결혼 한건 알아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이 여자는 날 이해해. 대화가 되거든. 우리의 경우는 특별해. 그리고 그 여자는 아주 영적이고 우리가 같이 있을때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있다고 느껴지거든.” 나는 이 바보같은 말을 쓸수있을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의 거짓이죠.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게되거나 잘못하는것을 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그의 눈을 감겨 그가 하는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때문입니다. 그는 속고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께서 그의 눈을 열어 사단이 그의 눈에 가리었던 속임수를 볼수있게 기도 하십시오. 그의 진정한 가치관을 왜곡하도록 눈을 감기는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떠서 보게 하시며 그를 구원하실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사람이 고의로 그의 등을 돌려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를 구원해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를 거스려 구원 하시지는 아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과 그의 일을 묶고 그의 마음을 진리에 열게 하시도록 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사람의 의지에 반대되는일은 하시지 않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5:16b-17).*

우리가 잘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정죄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된다고 하는 설교에는 동의 할수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옥에서 타는불가운데 있을때 설교에 귀를 기울일걸” 등등의 것들에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 죄 즉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것만이 당신의 영혼을 정죄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므로 죽음에 이르는 죄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5:18a).*

그것은 내가 새성품을 가졌기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으므로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하나님에게로 난자, 곧 중생한자는 죄를 지을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미있는것을 발견 하실겁니다. 한번 중생했다면 죄를 짓고서 도망가지 못할것입니다. 그전엔 속이고 피했지만 한번 중생한 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 버려 두시지 않을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마음에 걸리게 하실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냥 지나치는것이 당신에게 좋지않기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드러나는것을 보실겁니다. 만일 그냥 넘어 갈수있다면 혹시 당신이 중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히 12:6).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넘겨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 (5:18b).*

누가 하나님께서로서 나신자 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5:18b-c).*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를 지켜 주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로서 나셨으며 나를 지키시고 악한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5:19-20).*

요한은 “ 우리가 안다, 안다, 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로서 난자는 죄를 짓지않음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으며 온 세상이 악한자안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것을 안다.” ‘안다’ 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 (ginosko) 이며 경험으로 아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된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참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임도 경험으로 압니다.

마지막 권고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5:21).*

얼마나 중요한 권고 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상에 메달릴수 있기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우상을 방에 두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저녁마다 주문을 외우리라고는 믿지않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는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아마 거실이나 가족실에 있을겁니다. 그것을 여러 시간동안 쳐다보겠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하고 때로는 소리 질러대기도 할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상에게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에게 당신의 아내나 다른 어떤것보다 시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상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갈때마다 쳐다보는 자동차 일수도 있습니다. 차에 올라가 앉아보고 언젠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건 내꺼야. 여러분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는 알수없으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대신에 내가 집중하는것이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는것이나 또는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는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멀리해야할 우상입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것도 중간에 들어오게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사람일수도 있고 사물일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의 풍요함에 들어가도록 기회주신것을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과 말씀에 기름부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드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주님을 믿고 더 의지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